

#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 국가대표 2명 배출

## 이혜경·김혜미,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대회 우승 '태극마크'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이 2023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에서 국가대표 2명을 배출했다.

14일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에 따르면 이혜경(-48kg)과 김혜미(70kg)가 최근 순천만국제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게됐다.

이혜경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이현서(포항시청)를 안팎축결기 한판승, 한수연(경기대)을 허리후리기 절반승으로 꺾는 등 절정의 기량을 발휘했다.

이어 준결승전에서는 오연주(성동구청)를 안아조르기 한판승으로 제압, 결승에 진출했다.

이혜경은 결승전에서 유주희(충북도청)에게 안팎축결기, 누르기 등을 묶어 한판승을 거두고 -48kg급 최강자로 우뚝 섰다.

신대철 광주도시철도공사 감독은 "이혜경은 국내에서는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 국

제대회에서 제 기량만 발휘한다면 충분히 메달을 따낼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김혜미는 1회전에서 유지영(경남도청)에게 기권승, 2회전에서 양지민(용인대)에게 반칙승을 거뒀다 8강전에서는 같은 팀 장한빛에게 반칙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해 이예원(부산북구청)을 반칙승으로 제압했다.

김혜미는 결승전에서 박다은(성동구청)을 안다리 후리기 한판승으로 눌렀다. 김혜미는 금메달 유망주는 아니었으나 이번 대회에서 경쟁한 라이벌을 꺾고 1위에 올라 기대감을 높였다.

신유나(57kg)는 결승전에서 김주희(용인대)에게 업어치기 절반으로 패해 은메달을 따냈다.

신유나는 광주체육 출신으로 태극마크를 달게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나머지 선수들과 국가대표 선발 랭킹 포인트를 다투고 있다.

이주연(-63kg)은 준결승전에서 신재원(용인대)에게 반칙패, 3위에 머물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선수들이 2023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입상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제공>

## 톰프슨 '3점슛 8방'

### 골든스테이트, 피닉스에 낙승

슈터 클레이 톰프슨이 3점슛 8개를 집중한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피닉스 선스에 낙승을 거뒀다.

골든스테이트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2-2023 NBA 정규리그 피닉스와 홈 경기에서 123-112로 넉넉하게 이겼다.

연승을 달린 골든스테이트(36승 33패)는 로스앤젤레스(LA) 클리퍼스를 제치고 서부 콘퍼런스 5위로 올라섰다.

두 팀의 승자는 없지만, 같은 콘퍼런스 팀 간 상대 전적에서 골든스테이트(23승 18패)가 클리퍼스(20승 21패)를 눌렀다.

반면 37승 31패가 된 4위 피닉스는 골든스테이트에 1경기 반 차로 쫓겼다.

시즌 초반 서부 13위까지 처졌던 '디펜딩 챔피언' 골든스테이트는 순위를 조금씩 올리더니 어느덧 플레이오프(PO) 직행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각 콘퍼런스 6위까지는 PO로 직행하고 7-10위는 별도 경기인 '플레이 인 토너먼트'를 통해 PO 진출팀을 가린다.

다만 플레이 인 토너먼트에 나서지 못하는 순위인 11위 오클라호마시티 선더(33승 35패)와 승차가 2경기 만에 그칠 정도로 5-11위 팀들이 근소한 간격으로 붙어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피닉스는 팀에 합류한 NBA의 강판스타 케빈 듀랜트가 복귀의 부상으로 결정할 후 1승 2패에 그치며 이전의 상승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듀랜트는 지난 9일 오클라호마시티와 홈 경기 직전 몸을 풀다가 갑자기 왼쪽 발목을 접질렀다.

피닉스는 2주가량 후 다시 듀랜트의 몸 상태를 점검해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골든스테이트에서는 톰프슨이 전반에만 3점슛 7개를 터뜨리며 승리에 앞장섰다.

총 3점 8방을 포함해 38점을 올린 톰프슨에 이어 생일을 하루 앞둔 간판 스테판 커리도 3점슛 4방을 쏴 23점을 보냈다.

벤치에서 출격할 조던 폴도 3점슛 4개를 성공하는 등 골든스테이트는 49%의 성공률로 3점슛 19개를 몰아치는 화력을 자랑했다.

/연합뉴스



라두카누 강력 스매싱 영국의 엠마 라두카누가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 오픈 3회전에서 브라질의 베아트리스 하다드 마이아를 상대로 강력한 스매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거리 증대로 골프 본질 훼손"...골프공 성능 제한 움직임

무한대로 늘어나는 비거리를 억제하기 위해 골프공의 성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4일(한국시간) "골프 규칙과 장비 규정을 책임지는 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조만간 골프공 성능 제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두 단체는 일찌감치 비거리 증대가 골프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기에 구체적인 골프공의 성능 제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R&A와 USGA는 3년 전에 공동 조사를 통해 프로 선수들의 비거리가 자꾸만 늘어나는 건 '골프에 해롭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35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골프 경기가 드라이버, 피칭, 그리고 퍼팅 테스트로 바뀌는 모양새다.

또 코스가 길어지면서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물과 약품 사용도 증가해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R&A와 USGA는 드라이버 샤프트 길이 상한을 두는 등 드라이버 성능 제한에 나섰지만, 궁극적인 비거리 증가 억제책은 골프공 성능에 손을 대는 것이라는 지론을 버리지 않았다.

앞서 2022년 USGA는 "장타자의 비거리에는 영향을 주면서도 골프를 취미로 즐기는 아마추어들의 비거리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지도록 골프공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한 이었다.

그러나 골프공 성능 제한은 골프계에 거대한 내전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 선수들도 의견이 다르고, 특히 골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용품 업체들은 벌써 변호사를 고용해 이런 움직임에 대응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높이뛰기 혁명 '배면뛰기' 창시 포스베리 별세

육상 높이뛰기의 혁명이라고 불린 '포스베리 플롭' (배면뛰기)을 만든 닉 포스베리(미국)가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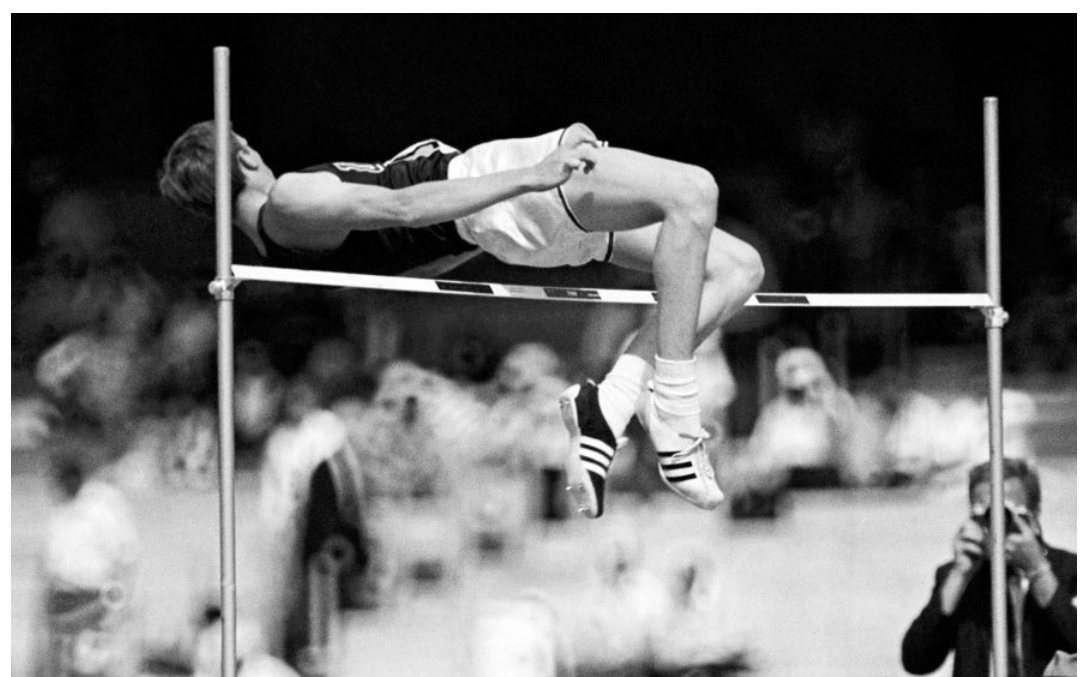
세계육상연맹은 14일(한국시간) "포스베리가 13일에 영면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포스베리는 높이뛰기의 새로운 세계를 연 전설적인 선수"라고 떠올렸다.

포스베리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4의 올림픽 신기록이자, 당시 세계 2위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결과보다 놀라운 건 포스베리가 선보인 신기술이었다.

높이뛰기 기술은 서서 바를 넘는 방법에서 도움닫기 이후 허공을 달리는 듯한 가위뛰기(Scissors Jump), 다리를 띄워 바와 복부가 마주하는 스트래들 점프(Straddle Jump)로 발전했다.

스트래들 점프는 배가 땅을 바라본다는 의미의 '벨리 롤 오버'(Belly roll over)라고도 불렸다. 스트래들 점프로 만든 최고 기록은 1963년 7월



포스베리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배면뛰기 기술로 바를 넘고 있다. /연합뉴스

발레리 브루멜(구 소련)이 작성한 2m28이었다.

포스베리는 고교 시절, 기계체조와 다이빙 선수를 보며 등이 바를 바라보며 넘는 배면뛰기를 고안했고, 1968년 올림픽 우승으로 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렸다.

배면뛰기는 높이뛰기의 혁명을 불렀다.

세계육상연맹은 "높이뛰기의 역사는 포스베리가 배면뛰기를 선보인 1968년 전후로 나뉜다"고 정의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출전한 높이뛰기 선수 40명 중 28명이 배면뛰기 기술로 경기를 치렀다.

이후에는 거의 모두가 성인이 되면 배면뛰기로 대회에 나섰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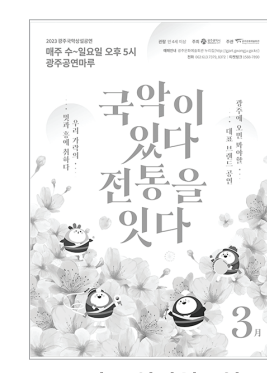
### LOTTE CINEMA | 총장로관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 2관 소울메이트, 플레인
  - 3관 사잠 신들의 분노
  - 4관 스즈메의 문단속
  - 5관 소울메이트
  - 6관 사잠 신들의 분노, 이니세린의 밴시
  -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 7관 씨네키움 대외비, 서치 2,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아
  - 8관 씨네키움 플레인, 멍둥이, 카운트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용콘서트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

